

세계화의 도전과 노동의 응전 -마지막회

## 제8장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비용

편집실

제1장 세계화: 무엇을 뜻하는가

제2장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제3장 세계무역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제4장 세계경제의 주인

제5장 세계투자는 어떻게 이뤄지나

제6장 국제 부채, IMF와 세계은행

제7장 돈이 세계를 돌아가게 하고...

국제 금융 이야기

제8장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비용

제9장 세계화에 도전하라

자유주의 사상이 세계경제를 지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사람들의 생활은 나아지고 있는가? 빈곤과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는가? 이 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룬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몇 가지 결과를 살펴본다.

신자유주의는 소수를 위해 엄청난 성장을 가져온다

경제성장은 지난 15년동안 엄청나게 이뤄졌다.

- 1970년과 1985년 사이에 국민총생산

(GNP)은 전세계적으로 40% 성장했다.

- 1850년과 1960년 사이에 전세계의 생산은 6.110억 달러였다. 1960년과 1993년 사이에 그것은 6조 9,360억 달러로 커졌다.

- 같은 기간에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는 2,120억 달러에서 6조 1,030억 달러로 거의 30배 늘었다.
- 몇몇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성장 역시 대단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동아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세기 경제발전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급속한 것이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뤄진 경제성장의 성과는 산업혁명부터 10여년 전까지의 기간에 이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1980년이래 20개도 안되는 나라에서만 소득증가가 있었다. 나머지 나라들은 심각한 경제후퇴를 경험했다. 지난 15년 동안 100여개의 나라가 경기침체를 겪어왔다.

지난 15년 동안의 경제발전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 일자리 없는 성장: 일자리 없는 성장은 경제가 발전하지만,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바이며, 남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미 겪고 있는 현상이다.
- 무자비한 성장: 경제성장은 과실이 몇몇 사람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수백만의 사람들은 빈곤악화에 반대해 싸우고 있다.
- 소리 없는 성장: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나 인적능력개발과는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형태를 거부당하고 있으며, 여전히 억압적인 체제에서 살고 있다.

- 미래 없는 성장: 현재의 사람들은 미래의 세대를 위한 자원을 벌써부터 낭비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경제성장은 강을 오염시키고, 숲을 파괴하고, 천연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 빈곤과 불평등의 증대

빈곤과 불평등이 계속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16억명이 10년 전보다 나빠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 불평등은 여러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 1. 부자나라 대가난한 나라

부는 더욱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는 물론 빈자와 부자 사이의 격차 역시 커지고 있다.

- 10년 전과 비교할 때, 89개의 나라들이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빠져있다. 이들 나라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다.
- 1993년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전체 가치는 23조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18조 달러가 선진국에서 만들어졌다. 단지 5조 달러만이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계인구의 78%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 1960년에 부자 나라의 1인당 소득은 가난한 나라의 그것보다 5,700달러 정도가 많았다. 하지만 1993년에 그 차이는 15,400달러로 커졌다.

## 2. 부자 대 빈자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자와 부자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왔다. 다음 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 사람들이 차지하는 몫이 1960년대 이래 점점 커져왔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하위 20%가 차지하는 몫은 줄어들었다.

세계적 차원의 소득 격차 (단위: %)

연 도	상위 20%	하위 20%	격차
1960	70.2	2.3	30:1
1970	73.9	2.3	32:1
1980	76.3	1.7	45:1
1989	82.7	1.4	59:1

## 3. 남녀 불평등

남녀 불평등은 세계 경제의 뚜렷한 특징으로 남아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남녀평등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남자와 동등한 기회를 여자가 누리는 사회는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여성이 세계 인구의 5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빈자의 70%와 문맹인의 66%가 여성이다. 그리고 경영관리자 가운데 14%, 국회의원의 10%, 장관의 6%만이 여성이다.
- 여성은 대개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환경이 열악한 비공식부문이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몇몇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 실업률은 남성 실업률보다 높다.
- 여성 노동은 대부분 무급인 경우가 많다. 가사노동과 생계노동 등 여성의 노동은 가치 이하로 평가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전세계적으로 무급 여성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1조 달러에 달한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일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전체 일 가운데 53%가 여성이 담당하며, 선진국에서는 51%의 일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 세계 경쟁의 심화

신자유주의의 지배는 세계 경쟁의 심화와 연관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국제 경쟁력(global competitiveness)이라 부르기도 한다. 경쟁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띤다.

- 가장 높은 이윤율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다.
-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을 잡아야 한다.
- 다른 기업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야 한다.
- 다른 기업보다 나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야 한다.
- 가장 싼 노동, 최고의 숙련노동, 최신 기술과 장비, 천연자원에 대한 최선의 접근, 생산에 대한 최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 초국적기업 같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세계경제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능력
- 최신기술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 최신 혁신 수단들과 접촉하는 능력
- 상황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숙련

## 노동력의 확보

이미 세계시장은 초국적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초국적기업은 최신 기술과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초국적기업은 세계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 세계경쟁이 노동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에게 세계경쟁은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뜻한다.

● 다시말해, 한 나라의 노동자가 다른 나라의 노동자와 경쟁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의 초국적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멕시코나 태국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멕시코 노동자들은 초국적기업의 투자유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캐나다 노동자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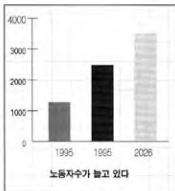
- 세계경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고 있다.
- 세계경쟁은 몇몇 나라의 고용은 늘리는 반면, 다른 나라의 고용은 줄어들게 만든다.
- 세계경쟁은 지역경제 혹은 국민경제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더 강하고 힘센 초국적기업(TNC)과 경쟁하게 만든다.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

지 못하는 기업들은 몰락하고, 이 때  
문에 실업이 늘어나기도 한다.

- 노동자들에게 세계경쟁은 자기 회사  
가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회사를 위해 더 많이 일해야  
자기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초국  
적기업과 경쟁하는 지역경제 혹은 국  
민경제의 기업들은 세계 경제에서 차  
지하는 국민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억제, 생산성  
증대, 협력적 노사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 세계노동시장의 변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노동  
자와 실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 공업과 농업 등 모든 산업과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이 세계경제로부터 영향  
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세계의 노동자수

- 세계의 노동자수는 1965년에 13억 2  
천 9백만명이었다. 1995년에는 24억  
7천 6천만명으로 늘었다.
- 2025년까지 그 수는 36억 5천 6백만  
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자들은 어떤 일에 종사하는가

- 2차대전 이래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노  
동자수는 줄어들었다. 반면에 제조업  
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늘었다.
- 1960년에 27%의 노동자가 산업에서  
일했다. 1990년에 32%의 노동자가  
산업에 고용되어 있다.
- 1970년대 이래 서비스 부문이 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노동력의  
2/3 이상이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960년에 노동력  
의 35%가 서비스 부문에서 일했는데  
1990년에는 55%가 서비스부문에서  
일했다.
-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아직도 노  
동력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새로운 국제 노동 분업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노동자 사이  
에 분업이 심화되고 있다. 가난한 나라는  
농업생산물과 천연자원을 세계시장에 파

는 반면, 부유한 나라들은 제조업 생산품과 서비스 및 금융상품을 팔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변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이들 나라에서 수출용 생산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저개발국의 노동자들은 농업과 천연자원 채취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세계적 차원에서 선진국이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조업생산품 비중은 20%에서 60%로 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 더 많은 숙련노동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은 선진국에 비해 숙련과 기술, 교육수준이 훨씬 떨어진다. 또한 개발도상국 내부에서도 노동분업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는 경제 규모와 산업발전 정도에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현대와 대우와 삼성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초국적기업을 통해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 비공식부문의 성장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비공식부문이 커지고 있다. 남아메리카의 경우, 1980년대 말 비농업노동자의 30% 이상이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다. 1990년 사하라 사막 이남의 비공식부문 종사

자수는 도시 노동력의 60%를 넘었다. 인디아 노동자의 90%와 태국 노동자의 70%가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다음 표는 비공식부문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의 경우 근로여성의 70%가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남성의 40%가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와 대비된다.

비공식부문의 여성노동자 집중도

나라	해	남성	여성
가나	1989	69	92
한자니아	1988	84	95
튀니지	1989	36	51
카보 베르데	1990	42	54
이집트	1989	46	74
볼리비아	1991	42	70
태국	1989	71	76
티키	1991	55	80

### 비공식부문이란 무엇인가

비공식부문의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비공식부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진입이 쉽다.
- 모착자원에 의존한다.
- 가족에의 의존하며, 소유권은 가족이 갖는다.
- 노동강도가 높다.
- 소규모로 일한다.
- 공식적인 교육제도 바깥에서 기술을 습득한다.
- 시장은 규제되지 않고 있으며, 경쟁이 매우 심하다.

## 노동이 “여성화” 된다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어나게 만들었다. 1970년에 36%였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에 40%에 달했다.

2000년에 이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전체 노동력의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비해, 여성노동자가 받는 임금, 그들이 처한 근로조건, 그들이 차지하는 직위와 직종은 별로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 남녀간에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 여성노동자를 강화하자

1994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국제연합(UN)이 개최한 국제여성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채택한 행동강령은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장, 근로조건 보호, 경제적 자원 및 자본과 기술에 대한 통제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증진한다.
- 모든 단위와 수준에서 여성들의 권력 구조와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충분하고 평등하게 보장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여성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 ILO의 노동기준과 규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 노동시장정책이 남녀평등을 지향해야 한다.
- 여성의 생산자원과 기술과 시장 접근이 나아져야 한다.
- 고용안정, 임금 및 근로조건에 보장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가사노동에서 남녀간의 공평한 분담이 보장되어야 한다.
- 충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의 의사결정참여가 더 잘 이뤄져야 한다.
- 남녀평등 관련 정보가 잘 갖춰져야 하고 감시되어야 한다.

## 아동노동

세계 곳곳에서 5천만~6천만명의 어린이가 일하고 있다. 이것은 공식통계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1억 명이 넘는 어린이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 나라보다는 가난한 나라에서 아동노동이 횡행하고 있으며, 교육정도가 낮은 나라에서 아동노동이 널리 행해진다. 아동노동은 주로 한푼을 더 벌어들여 부모의 무관심과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갖고 있지만, 법만으로는 아동노동을 근절할 수 없다.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보

- 평등한 교육기회의 확대
- 공공근로프로그램

실업

부자 나라도 가난한 나라도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8억 2천만명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는 세계노동력의 30%에 달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선진국에서 3천 5백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다음 10년동안 10억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 민영화 프로그램의 확대, 값싼 노동력을 목표로 한 공장 및 설비의 이전은 실업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환경악화

지구의 미래는 환경악화로 위협받고 있다. 환경파괴 역시 세계화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 환경파괴의 결과 숲이 사라지고 있다: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땀감과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도로와 철도와 공장과 광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숲을 없애게 되었다. 1988년까지 전세계 우림지대 숲의 40%가 사라졌다. 남미 숲의 37%, 아시아 숲의 42%, 아프리카 숲의 52%가 사라졌다.
- 오존층도 파괴되고 있다: 태양의 해로

운 광선으로부터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던 오존층이 대량으로 없어지고 있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은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CFC 성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세계적 온난화 현상: 지구 대기의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CFC 성분을 가진 가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산화탄소 성분이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환경문제를 노조의 의제로 만들자

노동조합은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데 있어 오랜 투쟁 전통을 갖고 있다. 환경보호는 이런 투쟁의 일환이다.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투쟁경험을 갖고 있다. 그 경험은 다음과 같다.

- CFC 성분의 감소 문제를 협상의제로 제기했다.
- CFC 성분의 사용 금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 환경문제를 교섭의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쓰레기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조직했다.
-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뤄냈다.
-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싸웠고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유럽의 몇몇 노동조합은 환경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네덜란드의 노동조합들은 노사정 3자 기구인 사회경제위원회(SER)에서 환경의제에 관해 교섭했다.

● 이탈리아의 노동들은 환경부와 환경 문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 이 장에서 배울 것

- 신자유주의의 지배와 세계화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그 혜택은 소수에게 독식되고 있다.
- 빈곤과 불평등은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의 다수는 여성이다.
- 빈자와 부자,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다.
- 나라들간의, 노동자들간의, 기업들간의 경쟁은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 세계경제는 실업과 비공식부문을 늘리며, 환경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 제9장 세계화에 도전하라

앞 장에서 우리는 세계화가 노동자와 빈민대중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것은 현재의 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대안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안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민주적인 세계경제로의 전환을 생각하기도 한다. 이 장은 노동운동이 합당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도울 논쟁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세계화 요약

각국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힘들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노동운동과 풀뿌리운동과 정부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있다. 저항은 다음과 같은 신념에 바탕해 있다.

- 사람들은 세계화에 직면해서 무력하지 않다.
- 실업,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세계경제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 노동조직들이 방어적이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이들 조직들을 강화하고 건설할 기회는 아직도 있다.
- 현재 상황에서 대안은 반드시 있다.
- 현재의 세계질서에 대한 비판은 기본 권리일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세계화의 도전은 무엇인가?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적기업(TNC),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선진국 정부의 힘은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권력기구에 대한 통제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 신자유주의 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기구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착취에 기반한 신자유주

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여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빈곤, 불평등, 착취를 뿌리뽑을 수 있는 실현가능한 경제적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 근로대중들 사이에 분열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 사이에, 임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 공식부문 노동자와 비공식부문 노동자 사이에, 고임노동자와 저임노동자 사이에, 선진국 노동자와 가난한 나라 노동자 사이에, 고용된 노동자와 실업자 사이에,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사이에,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 사이에 분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계급 내부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노동운동은 정치적·조직적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국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듯하다. 노동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소비에트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국제적으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조직들의 종말을 몰고왔다. 그 결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대안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전략과 이론적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동이 매일 부딪히는 쟁점들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공식화하는 방식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고, 노사정 3자기구를 요구하고 참여하며, 노동자와 근로대중을 위한 경제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대안 전략

노동운동과 동맹세력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 세계적인 힘들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노동은 WTO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적인 기구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하는가?
- 정부는 세계화를 통째로 거부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홀로 가야 하는가?
- 아니면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에 참여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노동자들과 근로대중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를 둘러싸고 4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 국민경제 혹은 지역경제의 강화
- 세계경제 참여
- 사회주의적 대안
- 사회민주적 세계질서

#### 국민경제 혹은 지역경제 강화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나친 경쟁과 세계화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지역 공동체와 국민 공동체의 힘을 튼튼히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세계 체제가 대중의 공공이익에 반하여 정치권력을 가진 몇몇 소수의 의식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지역경제와 지역시장에 권한을 부여할 법률 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가져오기 위해 해당 지역과 나라의 사용자들에게 우선권을 줄 것을 주장한다. 이 입장은 상품의 생산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시장을 아무에게나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하면, 우리 경제가 해를 입고 고용이 파괴되며,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 해당 지역 혹은 국가의 경제가 지금은 수입하고 있는 상품 가운데 어떤 것을 자체로 생산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채택했던 나라는 주로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었는데, 1970~80년대의 한국과 대만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다뤄지고 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에 의해 강력하게 주창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다음 사항을 주로 요구한다.

- 국민경제 혹은 지역경제의 기본적인 요

구를 충족시킬 것

- 관세를 통해 지역 혹은 국민경제를 보호할 것.
- 지역경제발전에 집중할 것. 예를 들면, 동아시아 차원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
- 국산품 혹은 지역 생산품의 구입과 소비를 장려하는 것.
- 국가의 강력한 경제개입

### 세계경제 참여

이 견해는 세계경제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미 모든 나라들은 세계화의 흐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경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해야,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견해를 “진보적인 경쟁력 강화”(progressive competitiveness)라고 부른다. 이 입장은 세계경제로의 참여 방법을 둘러싸고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뉜다.

한 흐름은 수출지향적인 발전의 강조, 외환규제 철폐,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에 바탕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설정한 이래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사회정책의 주요 흐름이 되고 있다. 최근 남아프리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고용재분배프로그램(GEAR)도 이러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흐름은 국민경제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출증대를 통해 세계경제에 주의깊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현행 무역자유화의 재검토, 관세 및 외환정책의 신중한 운용 따위를 강조하면서 경제에 대한 강력한 국가개입을 요구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층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는 노동 진영은 지역경제 혹은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에서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노동 진영은 다음을 강조한다.

- 신중한 관세인하
- 지역경제 혹은 국민경제에 우선권 부여
- 점진적인 재정적자 감소 추진
- 공공 인프라 확충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파트너십 강조

### 사회주의적인 대안은 어떤가?

여러 나라에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노동운동의 선두주자인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조직 목표로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 사상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세계 곳곳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쳤다. 더군다나 중국, 베트남 등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들도 민영화와 사유재산제의 허용같은 자본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소련, 동독, 중국, 베트남 따위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좌익진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비판가들 역시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사회주의냐"라는 물음에 별다른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사실 세계 도처의 사회주의 조직들은 사회주의적인 대안의 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전략 부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적인 대안의 부족이 현존 체제의 정당성을 저절로 보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구호나 선언에서 건져내어 정책과 전략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현실 사회주의의 경험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는 일당지배체제를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당제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는 국유화 중심의 중앙집중화된 계획경제를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기능을 일정 정도 보장할 것인가.
- 사회적으로 사회주의는 무계급 사회

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계급공존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 문화적으로 사회주의는 사회적인 집단원체제에 기초하는 집단주의에 기초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할 것인가.
- 환경적으로 사회주의는 인간을 지구와 우주를 좌우하는 완벽한 지배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연과 주변환경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불완전한 하나의 생물로 볼 것인가.

큰 틀에서 사회주의 전략의 내용과 사회주의의 미래는 현실 사회주의가 제기한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다.

### 사회민주적인 세계질서는 어떻게?

국제식품노동조합연맹(IUF)의 사무총장인 단 갈린 같은 노동운동가들은 세계화와 세계경제의 출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세계화의 형태를 신자유주의로부터 "사회민주적인 세계질서"(social democratic global order)로 전환시키는 것이 노동진영의 임무라고 말한다. 이것은 주식보유자, 투자자, 고객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모두(노동자, 소비자, 농민, 지역민)에게 지분을 주는 것이다.

이 입장은 세계시장경제가 효율성은 물론 공평성을 동시에 갖고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입장은 시장이 경제를 조직하는데 일정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시장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이 입장은 다음을 요구한다.

- 세계경제를 규제할 것
- 세계적 차원의 노사정 3자기구를 조직할 것
- 세계경제를 사회적으로 유지가능하게 만들 것

### 1. 세계경제를 규제하라

이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규제할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주식 혹은 통화를 사고 팔 때 세금을 부과할 방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초국적기업과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을 전세계적인 세금체제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접근방법은 세계경제가 통제되고 규제되었던 2차대전 이후의 특정 기간에 주목한다. 당시 전후재건사업은 고용과 경제성장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세계경제를 통합시키려는 세계적인 차원의 재건 프로그램으로 고안되었던 것이다. 당시 주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GATT와 IMF와 세계은행의 설립에 관여했던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2차 대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개발국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

면서 세계의 자원과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고, 세계 곳곳에서 생활기준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회민주적인 세계질서를 지지하는 입장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오늘날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 2. 세계적 차원에서 노사정 3자기구를 건설하자

이것은 IMF와 세계은행과 WTO같은 세계경제기구들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대표들을 공식기구와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을 뜻한다.

### 3. 세계경제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자

현재 세계경제에서 빈곤과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정의와 평등에 바탕한 세계질서의 수립을 요구한다. 이것은 노동진영이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에 나와 있듯이 국제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실현할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 것을 뜻한다.

-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사회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 무역협정에 사회보호 조항(social clauses)을 삽입해야 한다.
- 국제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 초국적기업이 사회적 권리를 지키도록 싸워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지배에 도전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노동진영이 더 많은 일관된 대응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던져주었다. 이 과제는 신자유주의 문제를 다룬 노동조직의 정책역량과 조직역량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세계시장경제의 규제

노동진영은 세계시장경제가 규제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지지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위해 노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세계 차원의 사회협약

노동진영은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초국적기업-각국정부-노동조합 사이의 사회협약을 지지해야 하는가?

● 국제경제기구의 개혁

노동진영은 IMF, 세계은행, WTO 같은 국제경제기구들을 개혁하고 민주화하지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최저노동기준의 확대

노동진영은 사회협약 논의와 캠페인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세계경제 속에서 인권과 노동조합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

노동진영은 범죄, 환경보호, 여성권리 신장 같은 사회적 이슈들을 처리하기 위해 근로빈민, 실업자, 시민사회단체, 지역운동단체, 환경 및 여성운동조직 같은 사회운동세력들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위의 과제들을 올바르게 제기하기 위해 노동진영은 세계화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더불어, 우리는 실천 능력을 길러야 한다. 머지 않아 이러한 문제들이 노동진영에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끝